

대구銀,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 금융지원

DGB대구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관련 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별대출’은 국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확진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최고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종합 상담팀을 운영하고 피해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신속한 심사를 지원한다. 또 일시적인 자금 부족



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에게는 상환유예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김태오은행장은 4일 “대구은행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쌍용차, 첨단안전기술 무상 적용 이벤트

SUV 전 모델 안전도평가 1등급 기법

쌍용자동차가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첨단 주행안전 기술을 무상 적용하고, 더욱 풍성해진 SNS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

티볼리와 G4 렉스턴에 이어 지난 해 실시된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코란도(사진)가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획득하면서 쌍용차 SUV 전 모델이 뛰어난 안전성을 검증 받게 되었다. 코란도에는 동급 최초로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에서도 작동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비롯해 첨단 주행안전 기술 답컨트롤이 적용되었다.



이를 기념해 2월 중 신차 출고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주유권(1명) ▲LG 트롬 건조기(2명) ▲애플 에어팟 프로(3명)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또 모든 SUV 출고 고객에게 답컨트롤 패키지 또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등 첨단 주행안전 기술을 무상으로 적용, 누구나 앞선 안전성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김재용 기자 juk@



롯데호텔, 유니세프에 4500만원 전달

롯데호텔이 서울시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서울에서 기부금 4500만 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하 유니세프)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롯데호텔 김현식 대표이사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호텔



BGF리테일, 진천군·아산시에 마스크 2만개 긴급지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온 교민과 체류자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에 마스크 2만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점포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품질 대란의 마스크를 쾌척한 것이다. 직원이 긴급구호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BGF리테일

취소 가능성 커진 ‘아트바젤 홍콩’



홍경안 역
시시일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국내외 문화예술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 ‘컨테이션’(Contagion, 2011)에서처럼 박쥐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며 사망자와 감염 지역이 늘어나는 현실의 불안과 공포가 예술계를 강타하고 있는 셈이다.

1년 이상 준비한 전시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람객 감소와 수익 저조로 이어지면서 열악한 재정적 기약 사들을 비롯한 유통 관계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국내 상황도 걱정이지만, 한국 컬렉터들이 많이 찾는 외국의 주요 전시들 또한 바이러스가 물고 온 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술장터인 ‘아트바젤 홍콩’이다. 홍콩아트페어를 인수해 2013년 처음 문을 연 아트바젤 홍콩은 이후 아시아권 최고의 국제 예술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9년엔 35개 국가에서 242개의 갤러리가 참여했다. 당시 수많은 컬렉터를 포함해 약 9만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약 1조원의 추정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오는 3월 17일 개막해 21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인

아트바젤 홍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최 측은 계획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홍콩을 둘러싼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5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홍콩은 중국 본토를 오가는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대폭 줄였고, 본토 개인 관광객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미뿔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불어나자 캐리 램 행정장관은 4일부터 중국 본토와의 육상 및 해상 국경 통과점을 두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홍콩 공공의료 노조는 국경 전면 폐쇄를 요구하며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 전면적으로 봉쇄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홍콩 내 의료 시설과 인력마저 부족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국 본토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과 국경 폐쇄조치는 중국 거부들의 지갑에 눈독을 들여 온 아트바젤의 입장에선 매우 곤혹스러운 수밖에 없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그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애초 홍콩을 아시아 공략 거점으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전시장 밖에서 이뤄지던 거래의 폭마저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아트바젤 행사를 취소해달라

는 참여 갤러리들의 요청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트바젤을 주관하는 MCH 그룹은 이미 8개월에 걸친 반중 민주화 시위 여파로 개최를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는 주문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민주화 시위에 대한 도덕적 참여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과거 같지 않은 경제적 측면도 고려됐다.

여기에 지난달 말 일부 갤러리는 주최 측에 서한을 보내 행사 취소를 주문했다. 내용에는 공중보건 위생이 위험해진 현실에서 전시회를 진행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더구나 일부는 아트바젤 홍콩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 지사를 철수시켰고, 자체 전시를 중단했다. 심지어 아트바젤의 주요 후원사인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직원들이 중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홍콩에 있는 2500명의 직원에게 당분간 집에서 일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한 우려로 참가의사를 거둬들이는 갤러리들이 나타난 형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내외적 환경 악화, 그에 따른 유력 갤러리들의 이탈 가속 및 개최 철회 요청은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국내는 물론 지구촌 미술계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미술평론가

신한銀, ‘신종 코로나’ 우한시에 200만 위안 기부

중 현지법인 유한공사 성금전달

신한은행은 중국 현지법인인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가 중국 우한시 자선총회에 후원금 200만 위안(한화 약3억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우한시 자선총회는 1993년 설립된 우한시 행정구역 내에 등기된 비영리 공익단체로 우한시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지휘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부처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가 기부한



자금은 우한시 자선총회가 설립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전문 기금을 통해 중국 자선법 등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전염자 확산, 긴급수요처, 자원배치 형평성 등 상황에 따라 안배해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는 중국 내에서 18개 분지행 및 총행을 통해 기부, 자원봉사, 경제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CSR)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후원이 우한시 주민들의 의료 지원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돌잔치 프로모션 출시

호텔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가 자녀의 첫 생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고객을 위해 ‘인스타일 디어 마이 베이비 돌잔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드래곤시티는 다채로운 아시안 스타일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뷔페 레스토랑 ‘인스타일’의 프라이빗 룸을 소규모 돌잔치에 특화된 공간으로 선보인다. 최대 30인까지 수용 가능

한 단독 룸은 돌잡이 용품을 비롯한 돌잔치 상, 포도 테이블과 럭셔리한 장식으로 꾸며진다. 생일의 주인공인 아이를 위한 의상 2종과 정통 프렌치 베이커리 ‘알라메종 델리(A La Maison De li)’의 2단 케이크, 스카클링 와인 2병 및 탄산음료 10병도 제공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인사

- ◆산은캐피탈 ◇신규 선임 △부사장 김건영
- ◆기상청 ◇4급 승진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우종택
- ◆데일리동방 △금융시장부장 김남규
- ◆파이낸셜뉴스 △디지털본부장 엄미령 △개발팀장 서상열 △콘텐츠X팀장 이대울

-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장 권민성 △방사선안전관리센터장 윤철원 △안암학사사감장 신현정
- ◆서강대 △기획처장 이종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 부단장 정시영 △국제처장 김치현 △교목처장 김상용
-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장 이승란
- ◆목원대 △기획예산처장 겸 경영전략실장

이승재

부음

▲이충열씨 별세, 인치동(기호일보 선임기자)씨 장인상 = 3일 오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32-890-3180